

‘더치페이’ 문화에 대하여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며칠전 친구 둘과 만나 한참동안 얘기를 풀었다. 처음엔 그저그런, 아주 일상적인 얘기중에 친구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온라인에 등장한 ‘집들이’에 대한 얘기다. 친구들과 만나기전 뉴스를 접하고 의아하기는 했다. 내용은 그랬다. 직장 동료 여럿이 갓 이사한 동료 집에 초대받아 선물을 사 들고 놀러갔다. 동료들은 집들이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이 음식과 술을 주문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당일 먹게 되는 음식값, 집주인과 초대받은 사람은 음식값을 더치페이하기로 했다. 막상 그렇게 하고보니 초대받은 사람은 땀띠를 한 기분이었다.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집들이 선물도 더치페이하자고 해라” 등 의견이 분분했다.

우리로 한참동안 설전이 오갔다. 중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로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맞다. 하지만 놀란 것도 있다. 요즘 사라진 것이 집들이다. 신혼을 시작

하면서 누구나 당연히 집들이를 하고 아이들 돌잔치도 했다. 그런날이면 아내들은 음식을 장만하고 손님차례에 고역을 치렀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 집들이라는 것이 사라져갔다. 그런 건 아예 찾아볼 수 없는 때가 온 것이다. 우린 ‘더치페이’가 어떠한 것은 차치하고 집들이라는 걸 하는 너희들이 부럽다”는 것으로 결론났다. 세상살이가 바쁘고 동료들과는 파편화된 일상을 사는 이들에게 집들이하자고 집에 초대할 것만으로도 점수를 더 주자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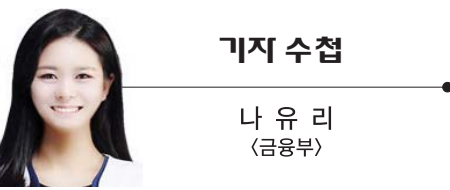
살면서 우리는 대체로 더치페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더치페이가 일상이라고 한다. 우리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더치페이는 잘 하지 않는다. 밥먹자고 부르면 부른 사람이 내는 편이다. 더치페이란 2명 이상이 모일 때, 그 비용을 한 사람이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 n분의 1로 돈을 치르는 방식이다. 이것 때문에 갈등도 있다는 얘기가 없지는 않다. 문화가 달라지고 달라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누리꾼들의 분분한 의견도 한참동안 진행될 듯 하다. 더치페이를 도와주는 앱이 많으니 달라지는 문화에 따라 기술도 발전해 여전히 신기할 따름이다.

예전에 나는 더치페이를 보고 경악한 적이 있다. 이 얘길 들으면 젊은이라도 경악할 듯 하다. 그리고 그건 아니라고 하지 않을까. 20여년 전 일본 도쿄 출장길에서다. 저녁무렵 우리 일행은 고기를 구워먹는 집에 들렀다. 옆자리에는 우리보다 너댓살 정도 적어보이는 일본인 넷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우린 내내 옆자리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와는 불판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저 평평한 불판 대신 옆자리는 네 구간으로 구분된 불판을 쓰고 있었다. 각 구간에 굽는 고기도 달랐다. 시켜놓은 술, 음료도 다르고 나중에 계산서도 각자에게 주어졌다. 거기서 들은 얘기로는 일본에는 더치페이가 아주 일상이어서 식당에서도 한 자리에서 불판을 같이 쓰지만 주문음식이 다르고 계산도 각자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서로다른 구간으로 절대 젓가락이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당시 더치페이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눈으로 실제 목격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암튼 달라지는 세상을 새삼 실감한다. 우리도 이런 일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걸 다른 이들도 알았으면 한다. 아직 어떻게 적응해야할 지 몰라서...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반복되는 금융위기와 실수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2012년 5월 7일 저축은행 4곳의 영업이 정지됐다. 오전 11시,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에서 73억, 경기저축은행에서 48억, 영남저축은행에서 18억원이 인출됐다. 솔로몬저축은행 계열인 부산솔로몬에서는 35억, 호남솔로몬 저축은행에서는 29억원이 빠져나갔다. 금융당국은 “인출규모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니 예금자들은 차분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지난 10일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유동성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급불능으로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이후 SVB 불통은 엉뚱한 곳에 튀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전 세

계 금융주가 급락하며, 그레디트스위스(CS) 주가가 하락했다. 여기에 아마르 알 쿠다이리 SNB 회장이 CS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주가는 스위스 증시에서 장중 30%나 폭락했다.

어디에서 어디로 불통이 뿔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은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들은 은행으로부터 시작된 불통이 우리에게 제한적인 것은 확실할까.

2012년 저축은행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5%대까지 금리를 올리며 발생했다. 시차를 두고 연체율이 오르며 부실이 확대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일 약한고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지목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금리가 오르며 부실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PF 대출이 급격히 오른 여신전문회사와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당국 관리감독이 닿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감사관한을 갖고 있어 금융당국이 관리할 수 없다. 불통이 튀는 시기, 제일 약한고리로 작용할 경우 피해가 겹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고 한다. 또 다른 안일함으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yu115@

오늘의 운세

3월 22일 (음 2월 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신을을 중시 여기고 작은 약속도 잊지 마라. 48년생 원하던 일이 손에 주어진다. 60년생 새로운 이성이 다가오나. 72년생 우울증이생기면 재빨리 되니 극복하려는 본인노력도 동반되어야. 84년생 계약하여 재물 이익 발생한다.

37년생 홀로자족하며 지내고 있어도 땅속에 보물이 있으니 행복. 49년생 다이나믹한 인생. 61년생 혼자서 가고 혼자서 멈춘다. 73년생 누군가에게는 호운이요 누군가에게는 과유불급이 되는 세상사. 85년생 강박관념은 항상 진행형.

38년생 어두운 얼굴은 복을 깎아먹는다. 50년생 음식보다 양자를 선택하게 된다. 62년생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걸. 74년생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86년생 보이는 것도 있고 고상하게 향기를 내는 사람도 있다.

39년생 경계를 넘는 것을 두려워마라. 51년생 잘 살려서 피할 것은 피해볼일이다. 63년생 마음이 편안하니 세상이 아름답다. 75년생 주변의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87년생 바다건너에서 소식과 함께 그리운 사람이 찾아온다.

40년생 초가삼간 태우는 격. 52년생 십년 묵은 체증이 해소. 64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그는 심정. 76년생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이나 기질을 파악하는 것을 관상이라 한다. 88년생 힘내라는 말 대신 실질적인 힘을 실어줘라.

41년생 안중에 휘말리면 본진 찾기 힘들다. 53년생 영업장에서 인사 없이 주문부터 받지 말자. 65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77년생 일할 때가 안심이 된다. 89년생 사별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알 것이다 사야 될지 말지는 선택.

42년생 친구모임이 있는 날. 54년생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좋은 말로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66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하니 겸손하게. 78년생 평소 실력으로 어깨를 으쓱할 일이 생긴다. 90년생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자.

43년생 먼저 칭찬해주면 마음을 얻는다. 55년생 가족여행을 포기하더라도 원형은 말린다. 67년생 어디에 행운이 있는지 모르니 준비. 7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 91년생 업무능력과 업무시간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니 시간 끌지 말라.

44년생 종종 긴 숨을 쉬고 생각을 가다듬자. 56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걸어간다. 68년생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80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서는 것이 현명. 92년생 제3자와의 긴 비밀은 없다.

45년생 아진 친구를 만나 지혜를 얻는다. 57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가며 들어야 한다. 69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 주의. 81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극복해야 한다. 93년생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전환점이다.

46년생 지나치게 강경하면 부러지기 쉽다. 58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다. 70년생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니 겸손. 82년생 불운의 요소를 안다면 바뀌가면서 복덕을 증진시켜보라. 94년생 지금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47년생 귀인이 나타나니 운이 활짝. 59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71년생 문서 운이 길하니 매매도 원만. 83년생 노력에 의해 불행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된다. 95년생 사람이 채우려는 재물은 끝도 없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다.

김상회의四季 내 머리를 못 깎는 이유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실제로는 출가 승려들이 자기머리를 못 깎는 건 아니라고 한다. 혼자서 깎을 수는 있지만 남의 손을 빌리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서로도를 때 공생과 화합을 이루며 훨씬 결과가 좋아짐을 함축하고 있음이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 속담은 자기스스로는 훌륭한 역량이 있어 주변사람을 잘 도와준다 하더라도 막상 자신의 일은 잘 다루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남의 일을 도울 때에는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있어 지혜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만 자신의 일이 되면 감정이 더 이입되어 사심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스포츠경기를 해설하는 해설위원들이 경기를 보며 실시간적으로 선수들의 뛰는 모습을 보며 이런저런 지적과 해석을 내릴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게 한다.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보다 명료하게 상황파악이 되는데 직접 뛰는 선수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바둑이나 장기훈수를 둘 때도 보면 보이는 현상이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꽤 보이는데 시합당사자들은 그 판 속에서 전체수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의 것은 잘 보이지만 자기 것은 잘 보지 못하는데 한 마디로 게임의 판 속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보자면 착(着)을 버리지 못하면 불행을 어깨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것과도 같다. 작은 집착의 줄임말이요 다른 말로는 번뇌이다. 내 문제에 대해서는 자존심이라는 상과 애착이 강하니 늘처럼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수렁과도 같이 돼 버린다. 그러니 답은 간단하다. 발을 빼면 된다. 그럼 발은 어떻게 빼는가. 그냥 바라보라. 바라보면 상당히 객관적이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5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256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파를 사물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2	7	9
	9		4		6	3
8		1			3	
	6				2	
	5			7		6
4	2		9		8	
1	3	8				2

			5			
		9	3			
8	9					1
2					9	7
				5	4	
9	2	6				
				7		

정답

1	7	9	8	2	5	6
2	6	5	2	9	7	8
3	8	3	1	6	9	2
9	1	2	7	8	6	5
8	2	7	6	5	1	9
5	6	2	2	9	1	7
8	9	1	8	7	2	6
6	2	2	9	1	8	9
7	5	8	9	2	6	1

9	8	6	2	1	5	7
5	2	1	8	7	9	6
8	2	7	5	6	9	1
2	7	9	8	8	7	2
1	5	8	9	2	7	6
7	9	2	2	1	8	6
8	1	5	6	9	2	7
6	8	2	7	8	5	1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